

“안심하십시오.

안전을 실제 시험 비행으로 보여 드립니다”

박명준 / 대한항공 정보시스템실차장

그 동안 2000년 문제에 대비하여, 우리 회사는 경영층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2000년을 불과 100일도 안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남은 일들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지난 '97년 4월부터 정보통신 부문 Y2K 문제 해결의 기본계획을 수립, 같은 연말까지 이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Y2K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내딛었다. 항공 분야에 손대기 시작한 것은 '98년 3월.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Y2K 전담추진팀에 참여하면서부터 활기를 띠었다. 이어 '98년 8월에는 비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Y2K 실시 및 영향평가 작업을 완료, 서서히 전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활기는 올해부터 띠기 시작했다. 기타 부문에 대한 문제 발견 및 해결이 속속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먼저 1월엔 항공예약 시스템에 대한 Y2K 문제를 해결해 바로 현업 적용에 들어가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Y2K 문제해결 테스트 및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2 퍼센트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갔다. 한편 4월부터는 각 BU별로 전체 업무에 대한 분야별 비상 계획을 수립, BU 자체적으로 확인, 점검 후 보완을 계속해 나가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대처를 토대로 5월에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Y2K 대응을 위한 1차 모의시험을 실시했

다. 5월14일 일반 국내선 운항이 모두 끝난 심야를 이용, 비록 소형기인 건교부보유 세스나 연습기이긴 하지만 모든 운항 조건을 2000년 00시를 전후해 놓고 서울, 부산, 제주, 광주 등지를 운항하며 관제소 등과 교신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우리 회사는 이 결과에 자신을 얻어 6월에는 우리 그룹 계열사들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점검까지 해 주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어 8월에는 지난 5월 1차에 이어 역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제2차 Y2K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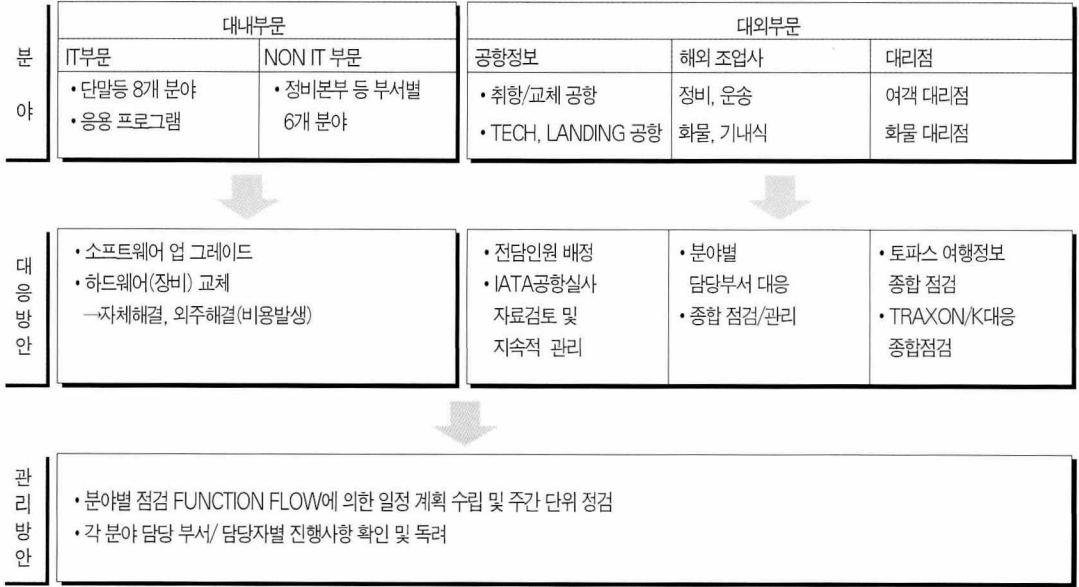
요령은 1차 때와 동일하나 실시 지역이 서울, 울산, 대구, 청주 지역 공역 및 공항이었는데 결과는 역시 이상이 없었다.

바로 지난 달인 9월부터는 국제선의 경우를 염려하여 해외 취항 공항에 대한 Y2K 문제 해결 자료를 검토해 오고 있다. 외국의 국제공항 역시 자국의 안전을 위해 IATA 자료 등을 통해 저마다 잘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비행기가 취항하는 곳인 만큼 우리 기준에 맞춰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Y2K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다음 <표1>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Y2K 문제 해결 완료 후, Y2K 대외인증 취득이나 자체 선언에 대한 준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외 홍보, 법적 대응 강구 등에 대한 준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표1〉

Y2K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이렇게 우리 회사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Y2K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해 다음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 대책을 세워 나갔다.

각 분야 별로 추진 현황을 알아 본다.

정보통신(IT) 분야

먼저 영업운송 시스템의 Y2K 대응문제는 올 초(1월14일) 이미 완료하여 현업에 적용하고 있다.

올 9월 30일 기준 2000년 1월1일 우리 비행기 탑승을 예약한 인원은 약 1만 5000명이며, 대기자 승객은 약 1만 5000명이다.

이 때에는 탑승객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우리 회사 경영층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의 장.차관 및 일부 관계자들이 솔선 탑승할 예정일 만큼 안전운항에 자신감을 나타낼 계획이다. 관리업무 시스템도 '97년 4월부터 기초 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했고, 올 2월에 Y2K 검증 기구를 도입, 적용함으로써 재확인을 마친 상태이다.

주전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IBM의 자회

사인 IGS(IBM Global Service)와 용역계약을 맺어 일괄 추진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장비, 교환기 및 단말 장비들은 Y2K대응에 관련하여 새로운 장비들로 교체하거나 통합 운영토록 했다. 특히 단말 장비들은 10여년 이상 사용해 온 오래된 것들이었는데 이번 Y2K 대응 덕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셈이다.

비정보통신(Non-IT) 분야

항공기 정비분야의 항공기 탑재장비, 재료분석장비, 계측장비 등은 이미 Y2K 문제를 해결했고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장비들은 FAA(미연방항공국)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염려 없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운항본부의 각종 시뮬레이터 장비, 제반 구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Y2K 대응작업도 완료했다. 한편 항공우주사업본부의 설계 장비인 CAD·CAM장비도 경쟁력 있는 장비들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마지막 점검이 진행 중이며, 기내식 및 객실분야, 시설분야, 항공보건의료원 분야의 Y2K 대응 작업도 완료해 놓고 있다.

(표2) 분야별 Y2K문제해결 진행현황

분야	주요장비/본부	총 수량	대상 장비	소요비용(백만원)
정보통신 분야	주전산기	4	4	9,200
	서버	69	69	
	단말장비	7,500	1,600	
	교환기	26	16	
	네트워크장비	2,160	57	
	PC장비	3,100	3,100	
	응용 프로그램	30,000	11,000	
비정보통신 분야	정비본부	582	54	420
	운항본부	14	14	
	시설부	131	10	
	기타분야	14	14	
총 합계		43,600	15,938	9,620

기타사항

우리 회사는 항공업계의 Y2K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세계 우수 항공사들과 IATA를 통해 공동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Y2K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4만달러나 되는 비용을 분담하였고 작년 11월에 이미 IATA와 공동으로 국내 1군공항(김포, 김해, 제주) 및 대구관제소(ATC)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국내16개 공항에 대한 Y2K 문제해결에 대한 점검('99. 9. 1 ~ 9.21)을 건설교통부 및 OZ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음은 위 경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우리 회사의 부문별 Y2K 진행현황 점검은 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의 Y2K인증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2차에 걸쳐 점검했다. 그룹사에 대한 Y2K의 가이드 라인 제시와 문서 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특히 영업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한국공항, 토파스여행정보, 트랙스 코리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끝냈다.

이러한 Y2K 문제 해결에 대한 진척 현황과 함께 고객들로부터 예상되는 의문점에 대한 설명을 회사 인터넷 홈 페이지에 등재하여 대외 고객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했고, 전임직원들도 Y2K 문제 해결에 대한 현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Y2K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은 지난 4

월에 분야 별로 작성했고, 미약한 부문은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2차에 걸친 모의시험으로 우리 회사의 예약, 발권 및 운송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이미 검증을 다 받아 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검증을 완료한 Y2K 대상 장비들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점검 즉시, 부착하고 있으며, 누락 장비 여부를 철저히 점검 또는 보완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2000년 그때까지의 계획은 어떠한가? 올 4/4분기 부터 해외 취항 공항, 교체공항, 임시기착 공항 등에 대하여 IATA 자료를 기준으로 각 공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부서가 2000년 1월1일 취항 여부를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공사들이 아무리 Y2K에 대해 예상되는 제반문제를 해결, 안전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승객들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 또한 소용없는 일. 따라서 우리는 Y2K 문제 해결후 법적 보장 장치는 아니나 기업으로서 공신력 있는 대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는 작업을 이달중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Y2K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아울러 해외지역 및 국내 분야별로 지속적

으로 점검, Y2K문제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고자 한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을 위해 3차 모의시험비행을 준비 중이다. 건교부가 이 달 중 또는 11월 초를 예정으로 실제 운항에 투입하고 있는 비행기를 이용한 제3차 모의시험비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제선(일본 및 중국) 구간에 대하여 실시될 이 시험 비행에는 우리 회사 항공기 사용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이 마저 이상 없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이젠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 회사는 그 어떠한 Y2K 비상사태에도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사항을 점검, 신속히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으며, 올 12월31일에는 D-1일에 대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한 치의 착오도 허용

치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희망이 가득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재앙부터 맞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희망이 가득찬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일도 있겠지만 2000년 전산 장애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2000년1월1일을 재앙부터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Y2K와 관련하여 누락된 장비와 시스템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일일 것이다.

Y2K에 대한 대비는 왕도가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을 하면서 새로운 2000년을 희망이 가득찬 새해로 맞이해야 되겠다.



International Workshop on IEEE1394

IEEE1394분과위원회는 12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18층)에서 IEEE1394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차세대 멀티미디어통신 인터페이스 기술규격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IEEE1394 관련 국내의 기술·특허부문의 발표 및 해외 선진 개발업체들의 제품현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멀티미디어가전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 행사명 : International Workshop on IEEE1394

(The Technology for Today & Future - Come, See and Feel)

■ 주요참여업체 : T.I., Unibrain, Sony, SAMSUNG, Asia Design, KIPO, Zayante, Intel, Quantum, Joinsoon, Philips, Intoto, Matsushita, Molex 등

※ 문의처: 협회 멀티미디어팀 (전화: 580-0535,7)